

“공직사회 전체 비상한 각오로”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변화와 혁신 주역 돼야” 강조
“국민 삶 속 체감 성과 돼야
가짜뉴스 단호히 대처해야”



이어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다.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라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

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르다.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을 언급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들이다.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며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장막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 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신임 비서실장 등 인사 발표
중국대사를, 한병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강기정(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엔 윤도한(58)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신임 비서실장 등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62) 주

이용호 “민주당 복당 선언 이후 주민 환영”

“지역위 일부 시·군의원의 반대 기자회견은 유감”



이용호 국회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의 ‘복당’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 입당 선언 후 많은 지역주민들이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며 “일부 시·군의원들의 기자회견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정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 입장은 이해가 된다”며 “저한테 주는 고언이라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당에 반대하는 시·군의원은 서명한 의원이 아닌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의원들로 봐야 한다”면서 “복당에 찬성하는 시·군의원들도 많다”고 평가했다. /김진성 기자

또 “바른미래당 또는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지 않은 것은 당초 국민의당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였다”며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복당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필요하다”며 “복당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민 끝에 중앙당과 교감을 갖고 복당을 추진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완진무장 ‘척척행복’ 실현”

민주당 안호영 의원, 진안서 새해 포부 밝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도당 위원장)은 진안지역 기자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성과와 새해 포부를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8일 오전 10시 20분 진안군청 브리핑실을 방문, 출입기자 및 간담회를 갖은 후 기관단체장과 간담회를 연달아 열어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19년도 국가예산이 전북 전체적으로 7조328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진안군 또한, 신규 40건, 계속 49건 등에서 국가예산을 따냈다”며 “특히 행안부 특별교부세 28억4,000만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67억4,000만원 등도 확보해 진안 발전과 주민편의 제고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주목할만한 지역 활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당선, △6.13 지방선거 압승, △진안군 등 전북 가야문화권 조명, △산림관광 및 말산업 활성화 도모 등을 꼽았다.

또한 의정 활동으로는 삼입위인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시화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법개혁특위 등 특별위 활동, 총 17회 토론회 개최, 17개의 입법안 대표발의 등을 추진했다고 안 의원은 말했다.

안 의원은 올해 의정계획에 대해 “올해는 20대 국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인만큼, 초선의원으로서 재선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삼입위(국토교통위)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정책대안은 물론,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새만금 국제공항 여타문제, 군산 등 지역경제 회생 등 전북현안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진안군 중점 현안인 국도26호선 소대정 터널(진안부귀~완주 소양) 타당성 재검토 결정이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년)에 진안읍~장수 천천간 2차로 개량 등 4개 도로가 포함되도록 적극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민주당 도당 위원장으로서 지역과 중앙과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총선공약 이행 및 지역현안과 연계된 의정활동 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완진무장의 ‘척척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조배숙 의원 익산을 의정보고회



민주평화당 익산을 위원장인 조배숙 국회의원이 새해를 맞아 익산을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순차 개최한다.

조 의원은 지난 5일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익산을 관내 13개 동 면을 돌며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해 익산과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펼쳤던 의정활동을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한 뒤, “특히 올해 의정보고회에서는 예년 보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김종희 의원 '진리의 향연' 특강



민주평화당 김종희 국회의원(김제·부안)의 ‘오해와 편견을 깨는 60분짜리 통쾌한 진리의 향연’ 특강이 정계관계 인사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인 조영구씨의 진행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김 의원은 8일 강연에서 “풍수와 관상은 인간의 오랜 경험과 통계의 산물”이라며 “풍수와 관상, 운명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자아성찰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강은 ‘잘못 알고 있는 동양사상과 역사’를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진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